

Craig Keener 박사, Matthew, 강의 8, 마태복음 5-6장 산상수훈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마태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Dr. Craig Keener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6장 8회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대조법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살인을 원하지 마십시오.

너는 간음하지 말며, 네 이웃의 배우자를 성적으로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러한 것 중 일부는 이웃의 배우자를 탐하지 않고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제가 독신이었을 때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리는 것조차 정욕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요구는 확실히 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번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정욕을 품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손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앞에 있는 여자의 아름다운 손이 칭찬의 뜻으로 치켜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맙소사, 정말 문제가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그분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적 취향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배우자나 미래의 배우자에게 불성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서는 이혼으로 배우자를 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배우자를 배반하면 불성실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우리에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반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럴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 서로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재혼하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일찍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라면 모든 재혼은 간음이므로 두 번째, 세 번째 결혼 등을 파기해야 합니다. 글쎄요, 과장된 표현이 전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그 아내에게 간음함이니라. 그녀에 대한 통지. 이것은 단지 규칙이 아니라 규칙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배신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혼은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무고한 당사자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때로는 양쪽 모두 유죄일 때도 있지만, 어쨌든 무고한 당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화에서 아내는 거의 어떤 이유로든 이혼할 수 있었고, 일단 이혼하면 경제적 의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혼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일부 후대 랍비들은 이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제단조차도 눈물을 흘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것이 허용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랍비들에게 와서 구걸한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남편이 저와 이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가 필요하다. 그 사람이 나와 이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미안해요. 하지만 그것은 법에 따른 그의 권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랍비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내가 10년 후에도 자녀를 가질 수 없다면, 당신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이혼해야 하고 그들은 다른 배우자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었고 그것은 랍비들뿐만 아니라 Pseudo-Philo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말했습니다. 음, 아시다시피 남편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와주지 마세요.

우리는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과 이혼해야 합니다.

그러나 네가 이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네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가지고 가게 하리라. 그래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에스더처럼 당신도 연회를 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좋게 만들고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술에 취한 동안 그 여자의 오빠들이 들어와서 그를 안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왜냐하면 결국 그는 이 집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그는 '아, 난 당신과 이혼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랍비들에게 가서 기도했고 그들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혼은 슬픈 일로 인식됐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실제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간음을 범했다면 문자 그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일 그가 그 여자와 이혼한다면 그 여자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혼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그 아내에게 간음함이니라.

Dedrick이 Shemeika와 결혼하고 Shonda와 잔다면 이름이 SH로 시작하는 여성을 좋아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간통입니다. 그러나 데드릭이 셰메이카와 이혼하고 손다와 결혼한다면 예수님은 그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Dedrick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Shonda와 결혼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복음 16, 18장에서처럼 무죄한 쪽도 여전히 결혼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어 간음하고, 또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도 그 여자가 왜 이혼했는지는 밝히지 않아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글썄, 이것은 문자 그대로인가, 아니면 과장법인가? 글썄,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신에게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내 말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종종 과장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오는 이혼에 관한 문맥은 과장법이다. 예수의 다른 가르침에서는 결혼의 해체성을 가정합니다. 내가 이혼을 말할 때, 당신이 허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실제로 끝났기 때문에 당신은 그 사람과 그 후에도 여전히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경우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32과 19:9의 예외 조항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예외를 인정한 바울의 자유를 통해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가복음 10장과 9절의 맥락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과장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글쎄요, 낙타가 정말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낙타 주스에 짜 넣으면 낙타 가루 차를 마실 수 있지 않을까요? 낙타 주스에 짜서 넣을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낙타는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낙타를 통째로 삼켰습니까? 소화불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의 추종자들은 문자적인 산을 얼마나 자주 옮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지진 등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넣는 그래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음,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오는 이혼에 관한 문맥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해결책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음욕을 품으면, 음, 음욕을 품으면 눈을 뽑아 버리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뽑지 않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하든 그것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고 있다면 컴퓨터 연결을 끊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눈을 뽑습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인 오리겐이 실제로 젊었을 때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거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대교회에서는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여생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비유하는 데 보낸 이유가 확실히 설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과장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래픽적인 방법입니다. 이 구절의 맥락도 마찬가지다.

예수의 다른 가르침에서는 결혼의 해소 가능성을 가정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당신이 한 번 결혼했고 그 이후로 다섯 남자와 함께 살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섯 번이나 결혼했지만 지금은 그냥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신은 그가 문자 그대로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은 두 구절이 모두 문자 그대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구절 중 하나는 문자 그대로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첫 번째 결혼 후에 나머지는 간음이거나 이것이 결혼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간음에 관해 말할 때 재혼에 관해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32절과 19장 9절의 예외 조항도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불충실한 연고 외에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사실, 불충실함은 이혼 문제에서 흔히 제기되는 법적 비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포르네이아, 즉 불성실 함의 의미를 좁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미의 축소를 암시하는 내용이 문맥에 없다면 의미를 축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적 부도덕을 의미한다. 실제로는 모이케이아 보다 넓습니다.

실제로는 간음보다 좁기보다는 넓습니다. 삼매 학파에서는 아내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감고 공공장소에 나가면 그것을 불성실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불충실한 연고 외에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의 정의에 따르면 이혼은 재혼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혼 계약에 사용된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혼의 타당성이었다. 이혼이 유효했다면 재혼도 유효했습니다. 이혼이 유효하지 않다면 아내의 경우에는 재혼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경우 유대인 남성들은 일부다처제를 허용했지만 그다지 자주 행해지지 않는 않았다. 이방인 세계와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일은 있을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 이혼이 유효하지 않으면 실제로 재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죄한 당사자가 배우자의 불성실로 인해 합법적으로 이혼했다면, 무죄한 당사자가 유죄인 당사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유죄인 당사자가 여전히 무고한 당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는 예수께서 예외를 두셨다면 아마도 원래 진술에 과장된 요소가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바울은 또 다른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신자가 충실한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버릴 자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결혼 생활을 파기하는 것은 자동으로 이혼을 수반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혼을 원하면 결혼은 파기됩니다. 상호 동의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일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디아스포라에서 일을 하는 유대인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풀은 이 문제를 남편과 아내의 두 가지 방법으로 다룰 것입니다.

마크 10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신자가 충실한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버릴 자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특별한 상황으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신자와 불신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자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적어도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떠난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신자는 그러한 경우에 속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혼의 자유를 보장하는 고대 유대인 이혼 계약서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 광야에서 발견된 고대 유대인의 이혼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Gittin이라는 책자에는 고대 유대인 이혼에 관한 전체 자료 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Mishnah Gittin 9에서는 이혼 공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유롭거나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더 자세히 설명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남자에게나 자유로우며 아내가 있는 어떤 남자와도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 즉 우리가 잠언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한정되어야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부자를 만든다. 글썄요, 바울은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감옥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격을 갖춘 일반적인 원칙의 진술로 받아들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혼에 관한 여섯 구절 중 네 구절은 명시적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를 설명하니까, 아니면 이러한 예외가 더 일반적인 원칙에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음을 인식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마태와 바울의 예외의 공통점은 신자가 결혼 생활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 상황에서 당장 이혼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성적으로 불성실하여 결혼 생활을 파탄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해서 불성실한 행동을 했고 그 당시에 법에 따르면, 항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법에 따라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배우자가 귀하에게 불성실한 경우, 귀하의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떠난 경우, 귀하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러한 경우에 신자는 속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신자는 자유합니다.

신자는 결혼 생활을 파탄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어떤 신자들은 누군가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당신은 결혼 생활을 파탄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결혼 생활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의 요점은 결혼 생활을 파탄하지 않은 사람, 결혼 생활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은 비유를 바탕으로, 예수께서 실제로 의미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바탕을 두고 예외를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울의 모델을 따른다면 오늘날 학대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경우, 아내가 남편이 마시는 커피나 차에 비소나 다른 종류의 독물을 넣는 경우, 그런 것들이 헤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종류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아무렇게나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글쎄, 그녀는 나를 간지럽혔고 나는 간지럽히거나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학대했어요와 같은 온갖 종류의 전화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이 성공하고 결혼 생활이 번영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예외는 예외여야 하며 결혼 생활에 충실하다는 과장된 표현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과 11절은 결혼이 해소될 수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과 9절은 그것이 실제로 녹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해산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깨진 결혼 생활은 실제로 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분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흩어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이 이에 적합하며, 과장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즉 이혼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적어도 신자 쪽, 순종하는 신자 쪽에서는 해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어의 수사적 기능은 요구입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결혼 생활이 깨졌을 때에도 여전히 손상되지 않고 새로운 결혼 생활을 깨야 한다는 것은 우주 법칙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다른 문화보다 일부 문화에서 더 관련성이 높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배우자가 불충실한 것으로 판명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때때로 그들은 배우자와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마태복음 19장에 도달할 때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하지만 랍비들 중에는 매우 두 가지 학파를 지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학파는 아내가 불성실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삼마이 학파였습니다. 힐렐 학파에서는 아내가 토스트를 태우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세푸스와 필론도 어떤 이유로든 이혼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건배하는 사람들을 불태우는 것이 널리 퍼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믿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결혼 생활에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불용성 물질과 용해성 물질을 함께 합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교육 기술에 비추어 볼 때, 유대교 교육 기술에 익숙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예수께서 이것을 할라키어보다 더 하가딕하게 의도하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으로 의도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의도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맹세가 성실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토라는 거짓 맹세에 대해 경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맹세를 하면 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이방인이라면 특정한 신의 이름을 불러 그 신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어에서는 여전히 'cross my heart and hope to die'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할 때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을 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을 믿는다면 그런 식으로 신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맹세에 대한 유대인의 견해는 다양했습니다. 요세푸스와 필로는 에세네파를 칭찬했습니다. 에세네파는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성실성이 높아 매우 엄격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세네파를 피타고라스파라고 불리는 그리스 철학 종파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타고라스학파는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진실을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의 예는 예의 역할을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말에 충실하십시오. 나이지리아 북부에 사는 나의 아주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은 한 세대 전, 그가 어렸을 때, 그리스도인이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어떤 말을 하면 그냥 해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맹세 하에 거짓말을 했을 때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정직하게 행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맹세와 함께 사람들은 때때로 맹세하는 대용물인 크누임 (k'nuyim)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서 멀수록 좋습니다.

이봐, 실수로 서원을 지키지 못했거나 실수로 맹세를 어겼을 경우를 대비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 나으니라. 하늘에 맹세합니다.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은 머리털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 머리털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실제로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서 욕하는 것이 거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예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맹세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느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맹세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세계관에는 순전히 세속적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정당한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불신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맹세를 하고 결국 그의 맹세를 이행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자신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도 그 원리에 대한 예를 갖고 있습니다. 보복과 저항을 피함, 5:38~42.

글쎄, 복수를 피하는 것. 그리고 물론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복수를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불리는 이 법칙은 고대 근동 지역의 표준 관행이었던 라틴어 *lex talionis*, 오늘날 고대 중동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1900년대 함무라비의 법전이나 법적 모음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여러 고대 법적 컬렉션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눈을 찌르면 당신이 어떤 조건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들을 판사에게 데려가면 판사가 그들의 눈을 찌를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금전적인 벌금을 내고 피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차이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는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언급되었거나 모든 사람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구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법에서는 계급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층의 누군가의 눈을 찌르면 눈이 찌르는 식입니다. 사회 계층이 낮은 사람의 눈을 찌르면 사회 계층에 따라 처벌이 적어지는 식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로 개선,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주변 법칙에 대한 개선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또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선을 의미했습니다. 범죄보다 더 큰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민법이 하는 일입니다. 민법은 죄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십니다. 복수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일을 법정에 가져가지도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눈을 찌릅니다. 글썄, 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텍스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른 쪽 뺨을 돌리는 다른 예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폐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는 이 법을 이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이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피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철학자와 유대인 현자들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19장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복수를 피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는 다른 쪽 뺨도 대는 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쪽 뺨을 돌릴 때 그 맥락은 실제로 종종 *lex talionis*(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및 기타 고대 근동 법률 모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과 연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예와 수치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통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의 뺨을 때린다고 해서 당신의 이빨이 부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화에서는 누군가가 장갑을 끼고 뺨을 때리는 오래된 영화나 문화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내가 당신에게 결투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명예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명예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백핸드로 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쪽 뺨도 그들에게 돌려대라고 하면, 나는 내 명예를 지키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견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모욕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항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은 뺨을 맞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미가야의 뺨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명예를 변호하지 말고 우리의 명예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도전하십니다. 이 중 과장법은 얼마나 됩니까? 글썄요, 과장법의 요점은 우리의 관심을 끌고 배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계속 진행되면서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는 말한다. 누가 너희를 법정에서 끌고 가서 너희 겹옷을 가져가려거든 너희 겹옷을 빼앗고자 하거든 내버려라(40절). 그리고 적어도 이집트에서는 많은 농부들이 겹옷 한 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이 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농민들은 망토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24장에서 유대법에 따라 압류가 특별히 면제된 소유물은 바깥옷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입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담요였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밤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네 겹옷을 가져가면, 가서 속옷도 주어라.

둘 다 주면 어떻게 되나요? 당신은 알몸이 될 것이고 그들은 아마 미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에게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이런 것들을 갖게 해주세요.

이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는 6장에서 공중의 새들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부양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소유를 놓고 사람들과 다투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음, 또 다시, 이것을 얼마나 멀리

밀고 나가시겠습니까? 누군가 무슨 일을 하면 법정에서 세우시겠습니까? 한번은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있을 때 내 학생 중 한 명이 나에게 왔는데 자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만났고 그녀는 자신의 보험 회사가 손해 배상을 지불하도록 보험 회사에 맡겨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것이 바로 보험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점은 복수를 구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지혜로운 한도 내에서 협력하는 것인데,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때로 과장되게 표현되는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41절. 유대와 갈릴리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시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협력하십니다. 점령군인 로마군 출신의 병사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시리아의 보조 신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물건을 징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나르면 된다. 아니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당나귀를 빌려 주어야 한다." 또는 겨울 동안 네 집에 가뒀야 한다. 그런 식으로요. 군인들은 정부가 부여한 법적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어디까지 협력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당신이 무언가를 1마일, 2마일 가지고 가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당신이 협력하고 있고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단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신의 빛을 빛나게 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멀리 추진합니까? 글썄,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보거나 실제로 바울을 본다면, 요한복음 18장에서 누군가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군가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 예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의 합법성에 도전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뺨을 치라고 명령하자 바울은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대답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과장된 요소가 있습니다.

내 말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바보라고 부르지 않으셨던 그 이전의 내용을 추측해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말한다, 너희 눈먼 바보들아. 따라서 과장된 표현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친절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려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자, 이것이 제기하는 또 다른 질문은 이것이 개인적인 억압자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 억압자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입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라면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 논쟁해 왔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 논쟁해 왔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지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었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회심하기 전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적에 관한 책을 쓴 후, 인터넷에 무신론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모든 무신론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급진적 무신론자들은 책을 잘못 표현한 신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대해 나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단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더 잘 알았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종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아내와 나는 민족 화해에 관해 연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트디부아르에서 내전이 일어난 직후 1700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종교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 사이의 민족 화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익숙했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도중에 나는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가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염두에 둔 적들은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에 있는 제 친구들 중 일부가 지하디스트들의 공격에 희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부 지하드주의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친구 두 명이 물도 없고 시신 한 구도 없이 교회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무슬림을 싫어하지 않았지만 내 친구들을 죽이려고 했고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던 지하디스트들은 처음에는 아무런 도발도 없이 결국 몇몇 젊은 기독교인들이 반격을 시작했고 다른 뺨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들은 지하디스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죽이고 있었는데, 이는 누구의 입장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온건파 이슬람교도들도 학살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나의 증오심을 정당화했고 주님은 나를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즉, 반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경찰의 조치와 같이 누군가의 입장이 어떠해야 하는지 반드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속으로 그들을 미워해도 되는지였다. 아니면 마음속으로 사랑해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문제는 '가장 실용적인 일은 무엇입니까?'였습니다. 내 말은, 비폭력 저항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것은 간디와 함께 일했습니다. 역사상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장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작동하지 않은 다른 장소에 대한 존경심에서.

그리고 적을 바꾸는 측면에서 그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문제는 여기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에도 원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효과가 있었고 우리를 그 자신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원수로 남았으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느니라.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나는 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적 상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문화에서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제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과장될 수 있지만 사랑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사랑은 이웃을 해로부터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하드 운동가들과 진리를 깨닫고 실제로 믿음을 갖게 되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자매가 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물을 내놓는 것(42절). 유대교에는 거지와 자선 행위가 흔했지만, 그들은 또한 높은 노동 윤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구걸할 필요가 없다면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문화에서는 어디에 기부할지 기도해야 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곳에 기부하면 그들은 종종 당신의 주소를 다른 여러 곳에 팔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물건을 요구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교에는 거지와 자선이 혼했지만 직업 윤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42절) 그리스 도시의 거리에서 구걸했던 냉소주의자처럼 스스로 길거리 사람이 됩니까? 유대교에서는 거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자선 활동을 십일조 외에 20%로 제한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보면, 예수님,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 말은, 그분은 군중들로부터, 제자들을 군중들로부터 데려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따라서 한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소유물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엔 그게 핵심인 것 같아.

43-48절, 원수를 사랑하라. 글쎄, 예수께서는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모든 종류의 적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이 왜 사랑스러웠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만 마태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처럼 그가 70세 이후의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 글을 쓴다면, 또는 70세를 향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70세 이전의 유대인 신자들을 위한 글이라면, 유대인들, 특히 유대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인이나 유대교 신자들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군.

그리고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이후, 제국 주변의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대해 그다지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인 콤란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그룹에 속한 사람이든, 당신의 그룹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어쨌든 당신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다른 교수와 함께 있었는데 그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경에 반대하여 가르치고 있었고 저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학생들 사이에 줄다리기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줄다리기에 물러나고 싶었는데, 의인이 악인 앞에 항복하는 것은 오염된 우물과 같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속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나는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도 학생들이 성경 옆으로 오도록 마련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 그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나보다 가르치는 경험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상 그런 식으로 발생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의 근거가 무엇이든 간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이 저주를 행하는 문화 출신이고 사람들이 당신을 저주했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을 행하는 문화 출신이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당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당신이 그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정말로

해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합당치 않은 저주는 당신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저주받을 자격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에 대한 저주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롱을 위해 조롱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확실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돌보거나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측면에서 제시하신 긍정적인 예와 부정적인 예가 모두 있습니다.

긍정적인 예는 하나님이다. 신은 고대 윤리학에서 종종 모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그것을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정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는 부정적인 예를 든다.

이방인들은 레위기와 다른 곳에서 부정적으로 간주됩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항상 성경의 율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방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들보다 더 잘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어떤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1년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사랑합니다. 4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역대하 24장에서 스가랴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편 13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행한 것 같이 어린 것을 붙잡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으리이까.

예레미야 15장, 심판을 찬양합니다. 신약 요한계시록 6장은 심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익 독재 체제 하에 있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 출신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부모가 이웃에 의해 살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은, 나는 그에게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높은 윤리가 있고 더 높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입니다. 나는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온 또 다른 학생인 Sundia Gan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음, 사실 나이지리아 중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특정 주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샤리아 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수도로 가서 국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아니요, 우리는 샤리아 법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하디스트들이 그들을 총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동 무기 등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는 한 일요일에는 그의 사촌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의 형제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의 형제들이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가 여기에 갔으며 그의 아내가 살해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는 기도했습니다. 복수의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소서, 강한 용사시여, 당신 백성의 원수를 갚으소서. 정말 잘 기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일요일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오 하느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소망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요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했기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몇 년 전, 강좌 초반에 제가 거짓 고발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내 사역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매우 나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나는 몇 년 후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일차적으로 선동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고 있던 일을 인정했습니다. 있잖아, 난 처음부터 그 사람을 사랑했었어. 처음 몇 달 동안 나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성경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맙소사, 그건 불공평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내 말은, 당신이 나에게 하라고 부른 모든 것, 나는 이 비난 때문에 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르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야 했다. 그것은 쉽게 오지 않았다.

빨리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내가 볼 수 있는 곳까지 왔는데, 만약 그 사람을 봤더라면 달려가서 안아줬을 텐데. 난 그를 사랑 했어.

그리고 나는 지금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해지세요. 48절.

이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전체로 번역될 수 있는 아람어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다양한 것들 중 일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가지의 배후에 아람어 단어가 있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성서의 헬라어 번역 신명기 18장 13절에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거나 흠이 없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9장, 레위기 20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면 우리 중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끝날 무렵에는 예수님의 요구가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하는 일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옳다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도록 하시면,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테스트를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은 이 주제를 더 이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당신의 의를 행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먼저 행할 수 있으나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 두 경우 모두 동일한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한 세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존경하게 되도록 자선 활동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보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여 그들이 너희를 보고 존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금식과 함께 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금식할 때 머리를 깎거나 씻거나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기름부음, 두피가 건조해져서 거기에 기름부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인들은 운동으로 자신에게 기름을 바르고 스트리길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긁어내는 관습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스스로 청소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글썬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단식을 하고 면도도 하지 않고, 씻지도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그것은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이를 닦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단식을 했을 때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했는데 제가 먹지 않았는데도 제가 단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때가

몇 번 기억납니다.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내가 방금 그녀에게 말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기 위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생각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상당히 무작위적인 예이지만 사람들이 정의로 간주하는 종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경(Apocrypha)에 속하는 책인 토빗서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토빗서 12장 8절에 이러한 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토라, 성전 봉사, 자선 측면에서 의의 기본적인 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후기 랍비들은 금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기도, 자선, 회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당신의 의를 행하지 않는 이러한 예를 드시며 그에 따르는 영원한 보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질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상하실 것인지에 대해 실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람들로부터 가능한 모든 것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고대 사업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전액을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빛진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예는 비밀리에 자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6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네가 은밀히 봉사할 때에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글썄요, 그들이 자선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들 앞에서 나팔을 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기도를 촉구하는 나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전에 있는 나팔 모양의 자선함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단지 과장된 표현일 뿐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요점을 표현하는 그래픽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선 활동을 하는 모습을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넣기 전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음악을 용서해주세요. 그러나 어쨌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나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고대의 어느 웅변가가 누군가가 손으로 위선을 행할 때 하늘과 땅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한 이후로 말입니다. 글썄, 나는 그것들을 섞었다. 글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종류의 과장법은 다른 곳에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2세기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는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네 귀에 들리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각적으로 말하는 방식이었을 뿐이므로 비밀로 놔두십시오. 자선을 위해 하늘에서 보물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것을 믿었습니다.

토비트서와 다른 곳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교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표준적인 기대입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성 안토니오, 성 프란시스, 웨슬리. 웨슬리에게 있어서 청지기 직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돌보는 데 우리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도 그런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내가 죽을 때 내 이름에 동전 한 움큼 이상이 있다면 모두가 나를 도둑이고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자원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바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기도하지 말아야 할 방법과 기도해야 할 방법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구조로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첫째, 위선자들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6.5. 은밀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6절).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7절, 8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는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의 예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과 15절에서 용서에 대한 간구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음,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도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옷장이나 창고로 들어가세요.

실제로 모든 집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과장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홀로 있기를 기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그를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공개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그는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싶어하고 공개적으로 기도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데 시간도 쓰지 않습니다. 과장법.

집들이 붐볐습니다. 그들은 촘촘하게 함께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은 종종 서로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언덕에 올라가셔야 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과 같습니다. 그는 기도 시간에 거리에 나가기로 한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 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버지만 보이도록 기도해 보세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을 조종하기 위해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의 다른 이름을 쌓아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문서에는 자신이 부르는 이 여신의 가능한 모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는 당신이 부르고 싶은 다른 이름으로 말합니다. 만일을 대비해 하나를 놓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조종하는 방식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신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이름을 쌓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신에게 보여준 다양한 희생, 제물, 호의에 호소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당신에게 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당신은 내 들판 등에 비를 좀 줄 수 있습니다. 로마 관습에서는 의식의 음절 하나가 엉망이 됩니다.

기도를 망쳤습니다. 성직자의 모자가 떨어지면 다시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교 기도의 공식과 조작에 매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식이 아닙니다. 동기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콩고에 계신 시아버지께서는 종종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뿐입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길고 정교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고 정교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매우 간결한 기도를 하십니다.

말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왜 알 수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아시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응답의 기초는 말을 쌓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을 올바르게 수행하거나 공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나도 모르는 공식으로 기도했는데, 더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기도는 다른 유대인 기도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Dr. Craig Keener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6장 8회입니다.